간략하게 설명한 **한자성어**

# 漢字成語

# - 가 -

◆ 街談巷說(가담항설) 길거리나 항간에 떠도는 소문.
◆ 苛斂誅求(가렴주구) ① 가혹하게 착취하고 징수함. ② 조세를 가혹하게 징수함.
◆ 佳人薄命(가인박명) 용모가 아름다우면 운명이 기박하다는 뜻.
◆ 苛政猛於虎(가정맹어호)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.
◆ 家和萬事成(가화만사성)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되어 나감.
◆ 刻骨難忘(각골난망) 은혜의 고마움이 마음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아니함.
◆ 刻舟求劍(각주구검) 판단력이 둔하여 세상일에 어둡고 어리석다는 뜻.
◆ 肝膽相照(간담상조)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사귐.
◆ 渴而穿井(갈이천정)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팜.
◆ 甘言利說(감언이설)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붙여 꾀는 말.
◆ 甘呑苦吐(감탄고토)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.
◆ 甲男乙女(갑남을녀)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.
◆ 康衢煙月(강구연월) 태평한 시대의 평화로운 풍경.
◆ 改過遷善(개과천선)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됨.
◆ 去頭截尾(거두절미) 앞뒤의 중요하지 않은 말을 빼놓고 요점만을 말함.
◆ 居安思危(거안사위) 편안히 살 때 닥쳐올 위태로움을 생각함.
◆ 乾坤一擲(건곤일척) 흥망. 승패를 걸고 단판 승부를 겨룸.
◆ 格物致知(격물치지) 사물의 이치를 구명하여 앎에 이른다.
◆ 牽强附會(견강부회)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임.
◆ 見利思義(견리사의)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의리를 생각함.
◆ 犬馬之勞(견마지로) 임금이나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노력.
◆ 見蚊拔劍(견문발검) 모기를 보고 칼을 뺌.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는 행동.
◆ 見物生心(견물생심)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김
◆ 見危授命(견위수명)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바침. → 見危致命(견위치명).
◆ 結者解之(결자해지)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함.
◆ 結草報恩(결초보은)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말.
◆ 傾國之色(경국지색) 뛰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을 일컫는 말.
◆ 敬而遠之(경이원지)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멀리함.
◆ 驚天動地(경천동지)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.
◆ 鷄卵有骨(계란유골) 뜻밖에 장애물이 생겨 일을 그르침.
◆ 鷄鳴狗盜(계명구도) 행세하는 사람이 배워서는 아니 될 천한 기능을 가진 사람.
◆ 鼓腹擊壤(고복격양) 태평세월임을 표현한 말. 배를 두들기면서 땅을 침.
◆ 姑息之計(고식지계) 당장의 편안함만을 꾀하는 일시적인 방편. 凍足放尿(동족방뇨), 下石上臺(하석상대)
◆ 孤掌難鳴(고장난명) 혼자 힘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말.
◆ 苦盡甘來(고진감래)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. ↔ 興盡悲來(흥진비래)
◆ 曲學阿世(곡학아세) 학문을 왜곡하여 세속에 아부함.
◆ 過猶不及(과유불급)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.
◆ 管鮑之交(관포지교) 관중(管仲)과 포숙아(鮑叔牙)의 사귐.
◆ 刮目相對(괄목상대) 학문이나 덕행이 크게 진보한 것을 말함.
◆ 矯角殺牛(교각살우) 작은 일에 힘쓰다 큰일을 망친다는 말.
◆ 巧言令色(교언영색) 교묘한 말과 얼굴빛으로 남의 환심을 사려함.
◆ 教外別傳(교외별전)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. 以心傳心(이심전심), 心心相印(심심상인), 教外別傳(교외별전)

◆ 膠柱鼓瑟(교주고슬)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음.
◆ 敎學相長(교학상장) 가르쳐 주거나 배우거나 두 가지 모두 나의 학업을 증진시킨다는 뜻.
◆ 九曲肝腸(구곡간장) 굽이굽이 사무친 마음 속.
◆ 口蜜腹劍(구밀복검) 말은 정답게 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.
◆ 九死一生(구사일생) 꼭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.
◆ 口尙乳臭(구상유취)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으로, 언어와 행동이 매우 유치함을 일컬음.
◆ 九牛一毛(구우일모) 많은 것 가운데서 극히 적은 것을 말함.
◆ 群鷄一鶴(군계일학) 평범한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.
◆ 群盲撫象(군맹무상)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는다. 즉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그릇 판단함.
◆ 勸善懲惡(권선징악) 착한 행실을 권장하고 악한 행실을 징계함.
◆ 捲土重來(권토중래) ① 한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남. ② 세력을 되찾아 다시 쳐들어옴.
◆ 橘化爲枳(귤화위지) 귤이 화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.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 안 좋게 변했을 때.
◆ 近墨者黑(근묵자흑)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. 즉 나쁜 사람과 사귀면 물들기 쉽다.
◆ 金科玉條(금과옥조) 금이나 옥같이 귀중한 법칙이나 규정.
◆ 金蘭之契(금란지계) 친구 사이의 우의가 두터움.
◆ 錦上添花(금상첨화) 좋고 아름다운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더함.
◆ 錦衣夜行(금의야행)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는 뜻으로 성공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.
◆ 錦衣還鄕(금의환향)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옴. 즉 타향에서 성공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감.
◆ 金枝玉葉(금지옥엽) 임금의 자손이나 집안 또는 귀여운 자손을 소중히 여김.
◆ 騎虎之勢(기호지세) 범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도중에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도중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내친 형세를 이르는 말.

## - 나 -

◆ 難兄難弟(난형난제) 형이 낫다고 할지 동생이라 할지 어렵다. 사물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음.
◆ 男負女戴(남부여대) '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'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님.
◆ 囊中之錐(낭중지추) 주머니 속에 든 송곳처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드러나게 됨.
◆ 內憂外患(내우외환) 나라 안팎의 근심 걱정.
◆ 內柔外剛(내유외강) 마음은 부드럽지만, 외면으로 강하게 나타남.
◆ 勞心焦思(노심초사) 몹시 마음을 졸이는 것.
◆ 綠衣紅裳(녹의홍상) 연두저고리에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곱게 차려 입은 젊은 아가씨의 복색.
◆ 弄瓦之慶(농와지경) 딸을 낳은 기쁨.
◆ 弄璋之慶(농장지경) 아들을 낳은 기쁨.
◆ 累卵之危(누란지위) 달걀을 쌓아 놓은 것과 같이 매우 위태함. → 風前燈火(풍전등화), 百尺竿頭(백척간두)

## - 다 -

◆ 多岐亡羊(다기망양) '길이 여러 갈래에서 양을 잃다'서 온 말로 너무 방침이 많아 갈 바를 모름.
◆ 多多益善(다다익선)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.
◆ 單刀直入(단도직입) 요점을 바로 풀이하여 들어감.
◆ 丹脣皓齒(단순호치) 붉은 입술과 하얀 이란 뜻으로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.
◆ 堂狗風月(당구풍월) 무식한 자도 유식한 자와 같이 있으면 다소 유식해진다.
◆ 螳螂拒轍(당랑거철) 제 분수도 모르고 강적에게 반항함.
◆ 大器晩成(대기만성) 크게 될 사람은 성공이 늦다는 말.

◆ 同價紅裳(동가홍상)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.
◆ 棟樑之材(동량지재) 기둥이나 들보가 될 만한 훌륭한 인재, 즉 한 나라의 큰일을 맡을 만한 사람.
◆ 東問西答(동문서답) 묻는 말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.
◆ 同病相憐(동병상련)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.
◆ 東奔西走(동분서주) 사방으로 이리저리 부산하게 돌아다님.
◆ 同床異夢(동상이몽)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꿈. 곧 같은 일을 하면서 속으로는 딴생각을 가짐.
◆ 杜門不出(두문불출) 세상과 인연을 끊고 출입을 하지 않음.
◆ 登高自卑(등고자비) ①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낮은 곳부터, 차례를 밟아야 한다는 말.
②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를 낮춘다는 말.
◆ 燈下不明(등하불명) 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알아내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.
◆ 燈火可親(등화가친) 가을이 되면 밤에 불을 가까이 하여 글 읽기에 좋다는 말.

## - 마 -

◆ 磨斧爲針(마부위침)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고야 만다는 뜻.
◆ 馬耳東風(마이동풍)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대충 듣고서 흘려버림.
◆ 莫逆之友(막역지우) 서로 거역할 수 없이 매우 친한 벗을 말함.
◆ 萬頃蒼波(만경창파) 한없이 넓고 푸른 바다.
◆ 晩時之嘆(만시지탄) 시기가 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.
◆ 亡羊補牢(망양보뢰)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.
◆ 亡羊之歎(망양지탄) 여러 갈래의 길에서 양을 잃은 듯,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못미침을 탄식.
◆ 望雲之情(망운지정) 자식이 타향에서 부모를 그리는 정.
◆ 麥秀之歎(맥수지탄) 나라를 잃음에 대한 탄식.
◆ 面從腹背(면종복배) 앞에선 순종하고 뒤에선 딴 마음을 먹음.
◆ 明鏡止水(명경지수) ① 거울과 같이 맑고 잔잔한 물. ② 마음이 고요하고 아주 맑고 깨끗한 상태.
◆ 名實相符(명실상부) 이름과 실상이 서로 들어맞음.
◆ 明若觀火(명약관화) 불을 보는 듯이 환하게 분명히 알 수 있음.
◆ 命在頃刻(명재경각) 거의 죽게 되어 목숨이 곧 넘어갈 지경.
◆ 矛盾(모순)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.
◆ 目不識丁(목불식정)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를 만큼 아주 무식함.
◆ 目不忍見(목불인견)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나 꼴불견.
◆ 武陵桃源(무릉도원) 신선이 살았다는 전설적인 중국의 명승지를 일컫는 말로 곧 속세를 떠난 별천지.
◆ 無爲徒食(무위도식)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함.
◆ 墨守(묵수) 묵자가 끝까지 성을 지킨다는 말로 자기의 의견. 또는 소신을 굽힘이 없이 끝까지 지키는 것.
◆ 刎頸之交(문경지교)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마음을 변치 않는 친한 사이.
◆ 文房四友(문방사우) 서재에 꼭 있어야 할 네 벗, 즉 종이. 붓. 벼루. 먹을 말함.
◆ 門前成市(문전성시) 권세가 크거나 부자가 되어 집문 앞이 찾아오는 손님들로 마치 시장을 이룬 것 같음.
◆ 物心一如(물심일여) 마음과 형체가 하나로 일치한 상태.

## - 바 -

◆ 拍掌大笑(박장대소) 손바닥을 치면서 크게 웃음.
◆ 反哺之孝(반포지효) 까마귀는 자라면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줌,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봉양함.
◆ 拔本塞源(발본색원) 폐단의 근원을 아주 뽑아서 없애 버림.

◆ 傍若無人(방약무인) 언행이 방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.
◆ 背水之陣(배수지진) 필승을 기하여 목숨을 걸고 싸움.
◆ 百家爭鳴(백가쟁명) 여러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일.
◆ 白骨難忘(백골난망) 죽어도 잊지 못할 큰 은혜를 입음.
◆ 百年河淸(백년하청) 백년을 기다려도 황하는 맑아지지 않음 아무리 기다려도 가망 없는 사태.
◆ 白面書生(백면서생) 한갓 글만 읽고 세상일에 어두운 사람.
◆ 百折不屈(백절불굴)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굽히지 않음.
◆ 百尺竿頭(백척간두)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에 이름.
◆ 夫唱婦隨(부창부수) 남편이 창을 하면 아내도 따라함. 부부 화합의 도리.
◆ 粉骨碎身(분골쇄신) 뼈는 가루가 되고 몸은 산산조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함.
◆ 不立文字(불립문자)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.
◆ 不恥下問(불치하문)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.
◆ 氷炭不相容(빙탄불상용) 얼음과 숯이 서로 용납 못함.

## - 사 -

◆ 四面楚歌(사면초가) 한 사람도 도우려는 자가 없이 고립된 상태.
◆ 砂上樓閣(사상누각) 모래 위에 지은 집, 곧 헛된 것을 비유.
◆ 事必歸正(사필귀정) 무슨 일이든지 결국은 옳은 결과가 끝남.
◆ 山紫水明(산자수명) 산수의 경치가 좋음을 일컫는 말.
◆ 山戰水戰(산전수전) 산에서의 전투와 물에서의 전투를 다 겪음.
◆ 山海珍味(산해진미) 산과 바다의 산물(産物)을 다 갖추어 썩 잘 차린 귀한 음식.
◆ 殺身成仁(살신성인) 절개를 지켜 목숨을 버림.
◆ 三旬九食(삼순구식) 한 달에 아홉 끼를 먹을 정도로 매우 궁핍함.
◆ 三人成虎(삼인성호) 거짓말도 여럿이 말하면 참말처럼 들린다.
◆ 三尺童子(삼척동자) 키가 석자에 불과한 자그만 어린아이.
◆ 三遷之敎(삼천지교)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(맹자)의 교육을 위하여 세 번 거처를 옮김.
◆ 桑田碧海(상전벽해) 뽕나무밭이 변하여 바다가 된다는 말. 세상의 변천이 심함을 표현.
◆ 塞翁之馬(새옹지마) 세상일은 길흉화복을 예측할 수 없음.
◆ 先見之明(선견지명) 앞일을 미리 보아서 판단하는 총명.
◆ 先公後私(선공후사) 공적인 일을 먼저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룸.
◆ 善男善女(선남선녀) 보통사람. → 甲男乙女(갑남을녀), 張三李四(장삼이사), 匹夫匹婦(필부필부), 樵童汲婦(초동급부)
◆ 先憂後樂(선우후락) 세상의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,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거워함.
◆ 雪膚花容(설부화용) ① 흰 살결에 고운 얼굴. ② 미인의 얼굴.
◆ 雪上加霜(설상가상)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듭 생김.
◆ 說往說來(설왕설래) 서로 변론(辯論)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 함.
◆ 纖纖玉手(섬섬옥수)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.
◆ 束手無策(속수무책) 어찌 할 도리 없이 꼼짝 못 함.
◆ 送舊迎新(송구영신)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.
◆ 首邱初心(수구초심) 여우가 죽을 때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둔다.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말함.
◆ 袖手傍觀(수수방관)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당하여 옆에서 보고만 있는 것을 말함.
◆ 水魚之交(수어지교) 교분이 매우 깊은 것을 말함.
◆ 守株待兎(수주대토) 어리석게 한 가지만 기다리는 융통성 없는 일.
◆ 脣亡齒寒(순망치한)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서로 돕던 이가 망하면 다른 한쪽도 위험함.

◆ 始終一貫(시종일관) 처음과 끝이 같음 -> 始終如一(시종여일).
◆ 識字憂患(식자우환)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근심이 됨.
◆ 信賞必罰(신상필벌) 공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,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줌.
◆ 身言書判(신언서판) 사람됨을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. 신수(身手)와 말씨와 문필과 판단력을 일컬음.
◆ 心心相印(심심상인)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. -> 以心傳心, 敎外別傳, 不立文字.
◆ 十伐之木(십벌지목)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.
◆ 十匙一飯(십시일반)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하나의 밥이 된다.

## - 아 -

◆ 阿鼻叫喚(아비규환) 지옥 같은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.
◆ 我田引水(아전인수) 제논에 물대기.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행동함.
◆ 安分知足(안분지족) 편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을 앎.
◆ 安貧樂道(안빈낙도) 구차한 중에도 편한 마음으로 도를 즐김.
◆ 眼下無人(안하무인) 눈 아래 사람이 없음. 곧 교만하여 사람을 업신여김.
◆ 哀而不悲(애이불비) 속으로는 슬퍼하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함.
◆ 弱肉强食(약육강식) 약한 놈이 강한 놈에게 먹힘.
◆ 羊頭狗肉(양두구육)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. 겉모양은 훌륭하나 속은 변변치 않음.
◆ 梁上君子(양상군자) 들보 위에 있는 군자, 도둑을 미화(美化).
◆ 漁父之利(어부지리) 둘이 다투는 사이에 제삼자가 이득을 봄.
◆ 語不成說(어불성설)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.
◆ 言中有骨(언중유골) 예사로운 말속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말함.
◆ 如履薄氷(여리박빙) 엷은 얼음을 밟는 듯 매우 위험한 것을 뜻함.
◆ 如反掌(여반장)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이 매우 쉬움.
◆ 易地思之(역지사지) 처지를 바꾸어 생각함.
◆ 緣木求魚(연목구어)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구한다. 불가능한 일을 하고자 할 때를 비유하는 말.
◆ 炎凉世態(염량세태) 권세가 있을 때는 따르고, 권세가 없어지면 푸대접 함.
◆ 拈華微笑(염화미소)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. -> 拈華示衆(염화시중).
◆ 五里霧中(오리무중) 멀리 낀 안개 속에서 길을 찾기가 어려움. 일의 갈피를 잡기 어려움.
◆ 寤寐不忘(오매불망) 밤낮으로 자나 깨나 잊지 못함.
◆ 烏飛梨落(오비이락) 우연의 일치로 남의 의심을 받는 것.
◆ 傲霜孤節(오상고절) 서릿발에도 굴하지 않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. 국화.
◆ 吳越同舟(오월동주) 원수끼리도 이익을 위해서는 행동을 같이 함.
◆ 烏合之衆(오합지중) 까마귀 떼와 같이 조직도 훈련도 없이 모인 무리.
◆ 溫故而知新(온고이지신) 옛 것을 익히어 새것을 앎.
◆ 臥薪嘗膽(와신상담) 원수를 갚고자 고생을 참고 견딤. (薪 :섶나무 신, 膽 :쓸개 담)
◆ 外柔內剛(외유내강) 겉보기에는 부드러우나 속은 꿋꿋하고 강함.
◆ 樂山樂水(요산요수) '지자요수 인자요산(智者樂水 仁者樂山)'의 준말로 지혜 있는 자는 사리에 통달하여 물과 같이 막힘이 없으므로 물을 좋아하고, 어진 자는 의리에 밝고 산과 같이 중후하여 변하지 않으므로 산을 좋아한다는 뜻.
◆ 龍頭蛇尾(용두사미) 처음엔 그럴 듯하다가 끝이 흐지부지되는 것.
◆ 龍蛇飛騰(용사비등) 용과 뱀이 나는 것과 같이 글씨가 힘참.
◆ 愚公移山(우공이산) 어리석게 보이는 일도 꾸준하게 끝까지 한다면 할 수 있다.
◆ 愚問賢答(우문현답)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.

◆ 優柔不斷(우유부단) 어물어물하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을 하지 못함.
◆ 牛耳讀經(우이독경) 소귀에 경 읽기→牛耳誦經(우이송경)
◆ 雨後竹筍(우후죽순) 비 온 뒤에 죽순이 나듯 어떤 일을 한 때 많이 일어나는 것.
◆ 遠禍召福(원화소복)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임.
◆ 月態花容(월태화용) 달 같은 태도와 꽃 같은 얼굴
◆ 韋編三絶(위편삼절) 공자가 읽던 책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것에서 유래. 열심히 공부한다는 뜻.
◆ 類萬不同(유만부동) 모든 것이 서로 같지 아니함.
◆ 有名無實(유명무실) 이름뿐이고 실상은 없음.
◆ 有備無患(유비무환) 미리 준비가 있으면 뒷걱정이 없다는 뜻.
◆ 流言蜚語(유언비어) 근거 없는 좋지 못한 말.
◆ 類類相從(유유상종) 같은 무리끼리 왕래하여 사귐.
◆ 悠悠自適(유유자적) 속세를 떠나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.
◆ 以心傳心(이심전심)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이 통하여 앎.
◆ 二律背反(이율배반) 꼭 같은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다고 주장되는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.
◆ 李下不正冠(이하부정관) 자두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. 남에게 의심 받을 일을 하지 말라.
◆ 因果應報(인과응보)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,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름.
◆ 人生無常(인생무상) 인생이 덧없음을 이르는 말.
◆ 人之常情(인지상정) 사람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인정.
◆ 一望無際(일망무제)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음.
◆ 一瀉千里(일사천리) 조금도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.
◆ 一視同仁(일시동인) 모두를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함.
◆ 日新又日新(일신우일신) 날로 새로워짐.
◆ 一葉片舟(일엽편주) 한 조각 작은 배.
◆ 一日三秋(일일삼추) 하루가 3년처럼 길게 느껴짐.
◆ 一場春夢(일장춘몽) 인생의 영화(榮華)는 한바탕의 봄꿈과 같음.
◆ 日就月將(일취월장) 나날이 다달이 진보함.
◆ 一片丹心(일편단심) 오로지 한 곳을 향한, 한 조각의 붉은 마음.
◆ 一筆揮之(일필휘지) 단숨에 글씨나 그림을 줄기차게 쓰거나 그림.
◆ 臨戰無退(임전무퇴) 싸움에 임하여 물러섬이 없음.

## - 자 -

◆ 自家撞着(자가당착) 자기의 언행이 전후 모순되어 들어맞지 않음.
◆ 自强不息(자강불식)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아니함.
◆ 自繩自縛(자승자박) 자기 줄로 자기를 묶는다는 말. 자기가 자기를 망친다.
◆ 自暴自棄(자포자기)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여 돌아보지 아니함.
◆ 自畵自讚(자화자찬)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함.
◆ 張三李四(장삼이사) 장씨의 삼남(三男)과 이씨의 사남(四男)이란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가리킴.
◆ 賊反荷杖(적반하장)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.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
◆ 戰戰兢兢(전전긍긍) 매우 두려워하여 겁내는 모양.
◆ 輾轉反側(전전반측)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.
◆ 轉禍爲福(전화위복) 화를 바꾸어 복으로 한다는 뜻이니 나쁜 일이 당한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옴.
◆ 切磋琢磨(절차탁마)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가리키는 말.
◆ 切齒腐心(절치부심)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면서 속을 썩임.

- 漸入佳境(점입가경) 점점 더 재미있는 경지로 들어감.
- 頂門一鍼(정문일침) 정수리에 침을 준다는 말로 잘못의 급소를 찔러 충고.
- 井底之蛙(정저지와) 견문이 좁고 세상 형편을 모름.
- 糟糠之妻(조강지처) 가난을 참고 고생을 같이하며 남편을 섬긴 아내.
- 朝令暮改(조령모개) 법령을 자꾸 바꿔서 종잡을 수 없음.
- 朝變夕改(조변석개) 일을 자주 뜯어고침.
- 朝三暮四(조삼모사) ① 간사한 꾀로 사람을 속여 희롱함. ② 눈앞에 이익만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름.
- 鳥足之血(조족지혈) 새 발의 피라는 뜻으로, 양이 적음.
- 坐井觀天(좌정관천) 우물 안 개구리. 세상물정을 너무 모름.
- 晝耕夜讀(주경야독)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함. → 螢雪之功(형설지공)
- 走馬加鞭(주마가편)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.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게 함.
- 走馬看山(주마간산) 말을 달리면서 산을 본다는 말로 바빠서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지나침을 뜻함.
- 酒池肉林(주지육림) '술로 연못을, 고기로 숲을 만든다'란 뜻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뜻함.
- 竹馬故友(죽마고우) 죽마를 타고 놀던 벗, 곧 어릴 때 같이 놀던 친한 친구.
- 衆寡不敵(중과부적) 적은 수효로는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한다.
- 衆口難防(중구난방) 뭇사람의 말을 이루 다 막기는 어렵다.
- 指鹿爲馬(지록위마)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.
- 指呼之間(지호지간) 부르면 곧 대답할 만한 가까운 거리.
- 盡人事待天命(진인사대천명) 노력을 다한 후에 천명을 기다람.
- 進退兩難(진퇴양난)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짐.

## - 차 -

- 滄海一粟(창해일속) 넓은 바다에 떠있는 한 알의 좁쌀. 아주 큰 물건 속의 아주 작은 물건.
- 天高馬肥(천고마비)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철을 일컫는 말.
- 千慮一得(천려일득) 바보도 한 가지쯤은 좋은 생각이 있다라는 뜻.
- 千慮一失(천려일실) 여러 번 생각하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한 일에도 때로는 실수가 있음.
- 泉石膏肓(천석고황) 고질병이 되다시피 산수 풍경을 좋아함.
- 天衣無縫(천의무봉) 천사의 옷은 기울 데가 없다는 말로 곧 문장이 훌륭하여 손댈 곳이 없음.
- 千載一遇(천재일우) 천 년에나 한번 있는 기회, 좀처럼 얻기 어려운 기회.
- 千篇一律(천편일률) 변함없이 모든 사물이 똑같음.
- 徹頭徹尾(철두철미) 머리에서 꼬리까지 투철함, 즉 처음부터 끝까지 투철함.
- 靑雲之志(청운지지) 출세하고자 하는 뜻.
- 靑出於藍(청출어람)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뜻.
- 樵童汲婦(초동급부) 보통사람.
- 草綠同色(초록동색) 같은 처지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함께 함.
- 焦眉之急(초미지급) 눈썹에 불이 붙음과 같이 매우 다급한 지경.
- 初志一貫(초지일관)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음.
- 寸鐵殺人(촌철살인) 간단한 말로 사물이 가장 요긴한 곳을 찔러 듣는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것.
- 出將入相(출장입상) 문무가 다 갖추어진 사람.
- 忠言逆耳(충언역이)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린다.
- 針小棒大(침소봉대) 바늘을 몽둥이라고 말하듯 과장해서 말하는 것.

## - 타 -

◆ 他山之石(타산지석) 다른 산에서 난 나쁜 돌도 자기의 구슬을 가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도 자기의 지덕을 연마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.
◆ 泰山北斗(태산북두) 태산과 북두성은 여러 사람이 우러러보듯이 남에게 존경받는 뛰어난 존재.
◆ 太平烟月(태평연월) 세상이 평화롭고 안락한 때.

## - 파 -

◆ 破竹之勢(파죽지세) 건잡을 수 없이 나아가는 세력.
◆ 表裏不同(표리부동) 겉과 속이 다름.
◆ 風樹之嘆(풍수지탄)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효도 못한 것을 후회함.
◆ 風前燈火(풍전등화) 바람 앞에 켠 등불처럼 매우 위급한 경우.
◆ 匹夫匹婦(필부필부)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.

## - 하 -

◆ 下石上臺(하석상대) 아랫돌 빼서 위에 올려놓음. 즉 임시변통으로 이리 저리 둘러맞춤.
◆ 鶴首苦待(학수고대)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늘여 몹시 기다린다.
◆ 漢江投石(한강투석) 한강에 돌 던지기. 지나치게 미미하여 전혀 효과가 없음.
◆ 汗牛充棟(한우충동) (책을 끄는) 소가 땀을 흘리고, 마루가 (책으로) 찬다. 책이 많음.
◆ 含哺鼓腹(함포고복) 배불리 먹고 즐겁게 지냄.
◆ 咸興差使(함흥차사) 심부름 간 사람이 소식이나 회답이 없음.
◆ 賢母良妻(현모양처) 어진 어머니면서 또한 착한 아내.
◆ 孑孑單身(혈혈단신)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홀몸.
◆ 螢雪之功(형설지공) 고생해서 공부하여 크게 성공함.
◆ 狐假虎威(호가호위) 남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림.
◆ 糊口之策(호구지책) ① 살아갈 방법. ② 그저 먹고 살아가는 방책.
◆ 好事多魔(호사다마) 좋은 일에는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는 뜻.
◆ 虎死留皮(호사유피)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김.
◆ 虎視眈眈(호시탐탐) 날카로운 눈으로 가만히 기회를 노려봄.
◆ 浩然之氣(호연지기) ① 사물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마음. ②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도 큰 원기.
◆ 惑世誣民(혹세무민)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것.
◆ 昏定晨省(혼정신성) 자식이 어두워서는 잠자리를 봐드리고, 새벽에 잘주무셨는지를 살핀다. 지극한 효도.
◆ 畵龍點睛(화룡점정) 용을 그려 놓고 마지막으로 눈을 그려 넣음. 즉 가장 긴요한 부분을 완성함.
◆ 畵蛇添足(화사첨족) 쓸데없는 일을 함. → 蛇足(사족)
◆ 花容月態(화용월태) 아름다운 여자의 고운 용태(容態). 미인.
◆ 畵中之餠(화중지병) 그림 속의 떡이란.
◆ 換骨奪胎(환골탈태) ① 얼굴이 이전 보다 더 아름다워짐. ② 남의 문장을 본떴으나 형식을 바꿈.
◆ 膾炙人口(회자인구)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입에 오르내림.
◆ 會者定離(회자정리)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임.
◆ 後生可畏(후생가외) 후진들이 젊고 기력이 있어 두렵게 여겨짐.
◆ 興盡悲來(흥진비래)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픔이 옴. 곧 흥망과 성쇠가 엇바뀜을 일컫는 말.

수능한문특강
修能漢文特講

전통문화연구회

사이버 書堂
www.cyberseodang.or.kr

이 교재의 저작권은 (사)전통문화연구회에 있습니다.
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,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.